

광주는 거대한 공사장 ... 안전사고·먼지·소음 '고통'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46건·신축 44곳 ... 현재 2만 여 세대 건설 중
일조권 등 각종 민원 쏟아져도 돈벌이에 급급한 건설사는 '막무가내'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민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건설기업의 막무가내식 개발 방식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아파트들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소음, 비산먼지 발생, 일조권 훼손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거대 자본을 앞세운 건설사의 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건축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

고를 계기로, 아파트 건설 관련 감독·단속권한이 있는 광주시나 자치구 등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아파트 신축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법 등을 들어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이은 성명서 등을 통해 이번 학동 참사의 원청기업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물론 공무원 등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전원 구속수사를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 아파트 건

설분이 일면서 지역 내 주요 갈등 사재를 낚는 주변이 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46건 중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곳은 이번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에 비롯한 계림 4구역, 남구 주월잠미, 북구 운암 3단지 등 4곳이다. 이들 4곳에만 6968세대가 들어선다. 이미 9곳은 철거를 마무리하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으며, 22곳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고도 44곳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총 1만 4486세대에 이른다. 2019년 말 광주 총주택 수는 62만 8186호로, 이 중 아파트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53.0%)을 훌쩍 넘어섰고,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결국 광주는 '회색 콘크

리트 도시'라는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붙었지만, 아파트 신축 붐은 꺾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시민의 삶의 질도 엉망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철거공사부터 완공까지 짧게 잡아도 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주민은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소음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소음 규정 등을 교묘히 악용하는 탓에 피해를 보상 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 훼손 등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다.

아파트 신축이 넘쳐나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남의 나라 얘기다.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광주시와 자치구 모두 담당 직원이 각각 1~2명에 불과

하고, 이마저도 다른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탓에 수많은 현장을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와 광주시는 이번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일이 잊혀질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본력을 앞세운 아파트 건설사의 횡포와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업무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민원을 해결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학동 참사 분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광주시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에 공감...전두환 재판 불참 부적절 다시는 광주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것"

광주에 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14일 광주를 찾아 "다시는 우리 당에서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청 광장에 마련된 '학동 4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이후 태어난 첫 세대의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수정당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야권의 불모지인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파격 행보라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 호남의 미래세대와 지역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약속한다"면서 "그 행보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언행 등에 대해서 저의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위원장 체제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초는 새로운 지도부에서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

령의 항소심 재판이 거듭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해 불성실한 협조를 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공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합의에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시민들이 안전을 우려해 여러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다소 신속하게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력을 총동원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면서 "재발방지에 있어서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살펴보고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나서도 "광주시민들의 아픔이 큰데, 야당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며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 붕괴 참사 대책반 설치...단장에 김영배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당내 합동 사후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원

시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하도급 문제나 원청의 부실 관리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경고와 민원이 있었음에도 왜 이것이 무시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밝혀겠다"며 "김영배 최고위원이 수습반을 맡

아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단장으로 있는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태스크포스) 산하에 합동 사후 대책반을 설치했다"면서 ▲해체 공사 현장 감독과 관할 지자체의 책임 보장 ▲지자체의 철거 현장 점검 의무화 ▲6월 국회 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 입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학동 붕괴 참사 드러나는 안전 불감증 ▶6면

굿모닝 예방 - 슬기로운 광주 탐구 ▶18·19면

KIA, 황대인의 대포가 필요해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OCIAL ECONOMY FAIR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경제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GWANGJU

기념행사
개막식/폐막식

전시행사
홍보관/상품관

부대행사
학술행사
지역연계프로그램
시민참여프로그램

온라인 박람회 6.21.~7.16.
미리 만나는 사회적경제 박람회
온라인 특별전
라이브 커머스쇼
BJ 박람회 랜선 투어

www.socialeconomyfair.kr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무국 문의 062-385-8596

주최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산림청,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임팩트얼라이언스

주관 광주지역추진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7.2 금 - 7.4 일
김대중컨벤션센터